

금주의 가정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내와 대화할 때 반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조금 벽이 느껴진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저는 아내를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경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모님의 영향이었습니다. 제 기억 속 부모님은 서로에게 늘 존댓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 나름의 생각이었습니다. 결혼 후에 다툼이 생기더라도, 최소한 말의 태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 주는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보면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어는 불편한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는 익숙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무례’는 상대를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무례함이 가장 쉽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말이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익숙하다는 이유로 상대를 쉽게 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반대입니다. 진짜 사랑은 가까울수록 더 조심하고,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을 통해 드러납니다. 상대를 세워 주는 말, 인격을 지켜 주는 말, 마음을 살리는 말을 선택하게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상대를 무너뜨리는 말, 상처를 남기는 표현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정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랑이 있는 공동체는 말이 다릅니다. 절제되어 있고, 따뜻하며, 상대를 향한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결국 말로 드러납니다. 오늘 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봉사하시는 분들

담 임 목 사 김강일 Rev. Kim, Kangil
반 주 자 김재순 Accompanist. Kim, Jae Soon

예배/모임안내

주일 예배 오전11시 본당
토요일아침예배
수요저녁예배
주일성경공부

2026년도 객슨빌 한인장로교회 협력 선교지

밀알 선교회 (아틀란타)
시각 장애인 선교: 영광 장로교회 (김화자 전도사, 한국)
교도소 선교: Smith State Prison(김철식 선교사,조지아)
페루: 김성일/김성숙 선교사
일본: 한인교회 노숙자 선교

봉사위원(Ushers/Services)

담당	4/19	4/26	5/3	5/10
안내/헌금	김미원/양재형		이지원/김정선	
기도	양재형	김정선	김영출	이민구
친교	이애자	김미원	김영숙	남선교회

지난주 헌금 내역(Offering) 총액: \$1,670

주정(Weekly)	10명
십일조	김동일 김영숙 양재형 김정선 서순옥
감사(Thanks)	김강일 허중호 박창현 김동일 김오한 권원중 서순옥 김영출 유희자 김금순 조경구 김용국(부활절)
선교(Mission)	조혜숙 김재순(영광 장로교회)

지난주 출석 통계

주일예배: 38명

창립일: 1978년6월5일

2026년 4월 19일
48권 15호



객슨빌 한인 장로교회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Jacksonville

주소: 856 Margaret Street, Jacksonville, FL 32204
전화 904-355-9793
김강일 목사 972-352-8926
홈페이지: www.jaxkpc.org

2026년 4월 19일

11시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Liturgist
경배와 찬양 Praise & Adoration	다함께 Congregation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함께 Congregation
*찬송 Hymn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다함께 Congregation
*교독문 Responsive Reading	시편 90편 다함께 Congregation
회중기도 Prayer	양재형 집사 Yang J.H.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에베소서 5:22-33 Ephesians 5:22-33 인도자/성도 Responsive Reading
말씀 Sermon	사랑은 명령입니다 김강일 목사 Rev. Kim Kangil
기도 Prayer	김강일 목사 Rev. Kim Kangil
찬송 Hymn	218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다함께 Congregation
봉헌 Offering	317장 1절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다함께 Congregation
봉헌기도 Offertory Prayer	인도자 Liturgist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Liturgist
*찬송 Hymn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다함께 Congregation
*축도 Benediction	김강일 목사 Rev. Kim Kangil
*후주 Postlude	반주자 Pianist



인도자: 주님께서 대대손손 우리들의 거처시며
저산들이 생기기전 세계가 생기기전
영원부터 주님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회 중: 주님께서 사람들을 티끌로도 돌리시고
죽을 인생 돌아가라 말씀도 하십니다.

인도자: 우리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하루 같고
지나간 밤 반짝이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회 중: 주님께서 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오면
인생이란 한순간의 꿈결과도 같은 것,
아침에 돌아나는 풀잎일 뿐입니다.

인도자: 아침에는 돌아나서 꽃을 활짝 피우다가
저녁에는 시들고 말 풀잎일 뿐입니다. (후렴)

회 중: 주님 돌아오십시오. 언제까지 이옵니까?
오시어서 주의 종들 위로하여 주십시오.

인도자: 저희들이 평생토록 기쁘고도 즐겁도록
아침마다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회 중: 괴로웠던 날수만큼 재난당한 헛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인도자: 주님의 종들에겐 주님께서 하신 일을
종들의 후손에겐 주님 영광 보이소서. (후렴)

- 환영**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보화 캐기’ 성경 읽기**
1) ‘보화 캐기’ 성경 읽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수료자: 이애자 권사
- 임직자 훈련**
오늘 (4/19) 구역 인도자 모임 직후, 본당 1층에서 시무 장로와
시무 안수 집사로 임직을 받으실 분들을 위한 두번째 훈련이
있습니다.
- 구역 인도자 정기 모임**
오늘 (4/19) 점심식사 후, 본당 1층에서 구역장들과 부구역장들의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 구역 모임**
다음 주일 (4/26)은 구역 모임이 있는 주일입니다.
구역장들은 모임 시간과 장소를 구역원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손잡이 설치**
본당 1층 복도에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왕래하실 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심방 안내**
심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김강일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친교를 수고해 주신 이애자 권사에게 감사드립니다.**